

# 고은 불교대하소설

## 스승 담인

**무**릇 일어남은 그 목표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힘이 넘치다가도 어느덧 그 힘이 줄어들어 없어짐으로 돌아가는 바가 세상인가.

그런 세상을 벗어나고자 힘이 열반인가. 인담 우녀와 함께 새로 심의 식구가 된 스승은 아직도 파도더미에 파묻혀서 사경을 헤매던 그 박찬 표류의 악몽을 떨쳐버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그 어둠 속으로 나와 있던 우녀가 그들을 위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의 명호를 불렀던 사실이야 우녀의 입으로 밝혀지지 않는 바에야 누가 알거나 하겠는가.

우녀는 남자가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무욕도의 시절을 마감하는 여감을 지우는 계기로 삼았다.

“... 이 도량이 더 이어져야 할 모양인가. 저런 숫된 사람 하나가 보태질 바에는 우리도 이곳 인연을 더 이어가야 하겠지. 그런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풀릴 노력도 아니겠지... 바다는... 섬은... 섬의 이 파도소리는 바다의 보살인 관세음보살이 파도소리를 듣다가 듣다가 듣는 귀대신 이 밤에는 눈으로 보는 경지에서 저런 남자를 보내 주시었겠지...”

이런 생각을 마치 열사들에게라도 두런 두런 얘기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던 우녀의 입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왜냐하면 그는 갑자기 머리가 탁될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막 일기 시작하는 거친 바람 속의 어떤 위난을 떠올렸을 때 바로 인담과 남자가 무욕도 부근의 바다에서 표류 중이었던 때였고 그래서 입에서 절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날밤 이후로 점점 불보살의 명호를 불러대는 삼매(三昧) 자체가 그의 간화선(觀禪)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름대던 그는 인담들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뜻과 함께 그의 염불선(念佛禪)이

식(六識)을 불러일으켜 6량(六境)인 색·성·향·미·촉·법을 낚아 그것에 한없이 끌리다가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유혹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 유혹의 강한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

바로 이 지배를 거부하여 그것을 동공 묶어둔다면 처음에는 마구 바둥거리다가 차츰 그 힘이 빠져서 지쳐버린다. 지친 나머지 버지 않아진다.

이 과정이 수행일전대 그것은 오직 한

염불선을 옮겨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소설에게 다그쳐듯이 말하였다.

“그대는 우선 하루에 한번씩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러기를 석달을 계속하라...”

인담과의 의논없이 우녀가 명령한 이 염불은 4분정간 따위로 하루 네번씩 나누어 하지 않고 밥 자를 때나 발을 댈 때나 바다의 먼 데를 바라볼 때나 멈추지않게 하였다.

무욕도량에 또해니의 선수행 염불선이 뒤늦게 시작된 것인가  
우녀는 새로 온 남자 스승에게도 염불선을 일러주었다 “나무관세음보살...”



84



## “스승이시여 보일 공부가 없나이다” 인담은 꿈속에서...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길으로는 태연한 인담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그 어둠속의 파도더미에 떠내려 갔다가 섬 기슭의 바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어떤 종장을 수 있는 의지에 의한 은혜였는지 모른다.

소식으로서의 파도더미 속에서 이미 잔 풀을 삼킨 나머지 절반쯤의 의식을 내버린채 인담에 안겨있었다. 기억이 남아있었으나 그것이 꿈인지 생사인지 알인지도 어렵게 하였다.

하지만 인담으로서야 함께 오케된 남자를 살릴 생각 밖에는 없는 그 사경을 벗어나 가까스로 섬 기슭의 바위 끝이 손에 잡힐 것이 어떤 영문인지도 모를만큼 다행일 따름이었다.

달로는 생사를 등구를 잃다 스러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사의 경계가 험할 줄이야... 그러므로 생사를 말하는 일은 정작 한가한 노릇이기도 하겠지... 장차 내 입에서 함부로 생사다 사다 하고 내뱉을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두사람이 파도더미에 덮치며 섬

시작된 터였다. 화두를 들던지 화두 없이 무념무상의 침묵으로 앉아있던지 하는 무욕도량의 자유로운 선 수행에 또해니의 선 수행으로서의 염불선이 뒤늦게 시작된 것인가.

선사에서 염불선이란 아래의 것으로 친다. 심지어 그것은 사악한 것으로 치기까지 한다.

하지만 눈 귀 코 혀 몸과 뜻의 6근의 노예인 나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화두 하나로만 가능하더라면 화두 이전의 오랜 시대와 수행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땀과 악어 그리고 새와 개, 여우와 원숭이들은 각각 그 습성이 다르다. 그 여섯가지 짐승들을 묶어서 함께 놓아둔다면 그들은 각각 그들의 살던 습성으로 돌아가 고자 할 것이다.

달로는 풀밭으로, 악어는 늪으로, 새는 하늘로, 개는 마을로, 여우는 외딴 벌판으로, 원숭이는 나무 위로 가려고 베투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 여섯 짐승 가운데 가장 힘센 쪽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여섯가지 짐승이 6근이며 6근이 6

가지므로 고정되어서는 안된다. 중생 각자의 처지에서 얼마든지 수행의 방법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귀여귀리가 소리를 듣고 소경이 눈을 보고 문둥이가 찬란한 미인과 함께 있게 되는 지 모른다.

어찌 선이 화두 하나에만 그치겠는가. 어찌 선이 수행자에게만 사람에게만 있겠는가. 살림대는 바람이 일면 그 바람이 섬이고 사나운 파도가 가리안던지 가리안던 파도가 사나워지든지 하는 일이 선이 아닐 수 없다.

그 바람소리와 파도소리가 곧 염불선이 라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목자거리도 선이다.

그런 바에야 이렇지사 불보살의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불러 나를 여의고 내가 부르는 대상조차 여의고 난다면 거기에 6조 해능과 마조(馬祖)는 불문이거나 조주(趙州)의 개 짖는 소리도 부처의 눈부신 형상이 솟아나는 보살의 천탄이 아니겠는가.

“부르러라, 당신 없어질 때까지” 라는 우녀의 다짐은 사뭇 비장한 것이었다. 아니 그는 새로 온 남자 스승에게도

그렇게 되자 소식은 잠자리에서도 잠고 대를 “나무 관세음보살...”로 하게 되었다. 그런 잠고대를 잠결에 듣게된 우녀는 소식을 무척이나 어려워 하였다.

“이 무욕도의 등불이 사위어가다가 다시 환히 빛나기 시작하구나...” 라고 잠에서 깨어난 눈에 핑크로 눈물이 고여 아주 작은 눈 안의 호수를 이루고 있었다.

등이 뜬 뒤였는가. 먼동 빛에 드러난 소식의 잠든 얼굴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은 황량한 사내에게는 견줄 수 없는 육정의 대상이거나와 상영한 정신의 사람에게는 숨이 막혀 버리는 정신과 정신 사이의 서늘 퍼린 대결이기도 한 것이었다.

우녀와 소식의 이같은 수행 때문인지 차라리 인담은 두 여자 밖에서 외딴 짐처럼 되어 혼자서 자적(自適)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임춘도 넘겨주고 함께 사는 우녀까지도 새로 온 스승에게 넘겨주었다. 이제야 나는 나혼자 흠뻑 젖도록 비를 맞을 수 있겠구나.”

돌이켜 보면 그는 우녀도 이곳에 데려왔고 소식도 이곳에 데려왔다. 조류가 사냥고 섬 주위에 암초가 많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섬이었는데 언젠가 이 일대의 해안에 되돌음이 풀이닥쳤을 때 이 섬에 한두번 사람이 건너온 일 밖에 없었는데 그런 빈 섬에 인담은 발을 디딘 이래 하나하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세상의 어느 도량과도 상관없는 도량, 이 세상의 어느 가정(家風)과도 상관없는 도량을 만들어 바야흐로 우주의 여기저기를 왕래하는 도반들은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첫 도반과 나중의 도반을 두어 그들모양으로 공부를 하도록 내버려둔 인담은 실로 오랫동안 꿈속에서 그의 고려 시절의 스승 담안을 보았다.

스승은 지난날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열렸새나 열이엿날 밤의 달처럼 환광였으나 이번 꿈에 본 스승의 모습은 무척 초월한 것이었다.

현실에서는 조선후기에 고려중기의 사람과 서로 만날 수 없지만 꿈의 세계에서는 고려와 조선 따위의 시대 차이 따위는

“그래야지! 어디 공부가 내노라던 내놈을 공부하겠느냐.”

“스승님이시여...”

“너는 그저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병아리란 말이냐.”

“스승님이시여...”

“허허허... 이렇게 독 안에 정성이 가득 담긴 놈도 이 세상에 있던 말이구나... 됐다. 내가 너를 알았으니 이제 내 할 일이 있어 떠나야겠다. 자 저쪽의 지팡이를 좀 갖다오.”

그때 인담이 스승의 곁에 기대어둔 지팡이가 쓰러져있는 것을 주워서 드리려는 데 이미 스승의 모습은 사라졌다.

“와!” 하고 인담이 놀라는 할나에 그 스승을 맞이한 꿈은 깨어버렸다. 그러나 인담은 꿈이 깨인 그대로 꿈쩍하지 않은채 그대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수미산이 침침하구나.”

그림·조향숙

###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지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 기도

관공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 길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 (0655) 33-2900, 0303 32-0662, 0072

### 심산유곡 山蔘

佛心の香氣로 그윽한 한佛子가 山蔘을 갓습니다. 因緣을 맺어드리겠습니다.

☎ (0416) 841-6576

山僧合掌

### 선종어록한문의 해석법을 새롭게 배운다!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종어록한문어록기반법

선종어록한문어록기반법

중국에서 선종은 당·송대에 그 황금기를 맞이한다. 따라서 선어록 대부분이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큰 일반적 언어 즉 구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선어록을 해석함에 있어 문어체에 의지한 현대적 해석은 그 타당성을 잃는다. 할지라도 '선종어록의 문법과 관공 생황 등을 토대로한 구어체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부응한다.

秋月龍德·秋月眞人 著/1冊 1冊/신국문 양장/22,000원

운주사 서문시 풍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 ~ 3 팩스: 723-0646